



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64.1억불($\Delta 9.2\%$), 도착금액 35.1억불(+26.4%)

- 전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신고기준 역대 2위
- 그린필드 투자 신고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등 한국 투자에 대한 신뢰 확인

2025년 1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9.2% 감소한 64.1억불, 도착 기준으로 26.4% 증가한 35.1억불을 기록하였다. 이는 1분기 신고기준 역대 2위, 도착기준 역대 4위이다.

【유형별】 공장 등 신·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신고는 전년 대비 20.7% 증가한 46.6억불(도착금액은 16.1억불, +20.4%)로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
M&A 투자도 신고금액은 감소(17.4억불, $\Delta 45.4\%$)하였으나, 도착금액은 증가(19.1억불, +31.9%)하여 국내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하였다.

* 1분기 그린필드 투자 신고 실적 : ❶ 46.6억불('25년), ❷ 41.5억불('23년), ❸ 38.6억불('24년)

【국가별】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신고금액 8.3억불(+15.0%), 도착금액 2.2억불($\Delta 25.3\%$)을 기록하였으며, 중국발 투자는 신고금액 3.3억불($\Delta 75.0\%$), 도착금액 0.4억불($\Delta 24.9\%$)로 대폭 감소하였다. EU의 투자 신고, 도착금액은 각각 14.9억불(+163.6%), 11.4억불(+123.5%)로 대폭 증가하였으며, 일본의 투자 신고, 도착금액은 각각 12.3억불(+8.6%), 1.0억불($\Delta 73.6\%$)을 기록하였다.

【업종별】 제조업의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.5% 감소한 23.3억불을 기록하였으며, 도착금액은 43.2% 감소한 5.7억불을 기록하였다. 서비스업의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.4% 감소한 35.6억불을 기록하였으나, 투자 도착금액은 68.7% 증가한 27.8억불을 기록하였다.

【평가】 작년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역기저효과와 함께, 트럼프 2기

관세 정책 등 국내·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,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미화 투자금액 감소*로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실적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.

* 1분기 평균 환율(원/달러, 서울외국환중개) : ('24) 1,328.45 → ('25) 1,452.66(+9.4%)

다만,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1분기 역대 2위 실적이며, 특히,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.4% 증가하여,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“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”고 하면서, “외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투자유치 모멘텀을 확대하고,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,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* 등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* 국제투자협력대사 적극적 유치활동, APEC 정상회의 연계 Invest Korea Summit 개최 등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권기만 (044-203-4080)
		담당자	사무관	노형철 (044-203-4089)
			사무관	김해원 (044-203-408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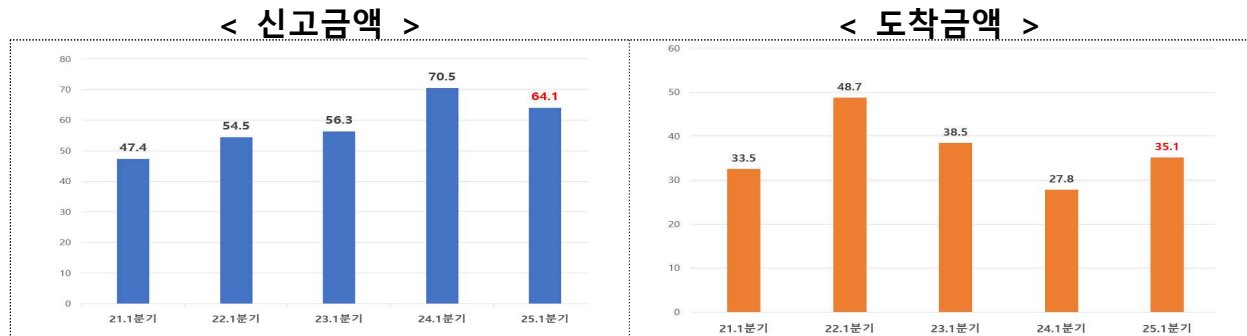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I. 총괄

- (실적) '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 64.1억불(전년동기 대비 $\triangle 9.2\%$), 도착금액은 35.1억불 기록(+26.4%)



- (평가) 역기저효과,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·외 정치적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,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미화 투자금액 감소로 '25년 외국인직접투자는 64.1억불(신고기준)로 감소

* 1분기 신고금액(억불): ('21) 47.4 → ('22) 54.5 → ('23) 56.3 → ('24) 70.5 → ('25) 64.1

- (유형별) 생산·고용 기여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신고가 46.6억불 (+20.7%)로 증가, M&A 투자 신고는 감소(17.4억불, $\triangle 45.4\%$)

* 1분기 그린필드 투자액 순위(억 달러): ① 46.6억불('25), ② 41.5억불('23), ③ 38.6억불('24)

- 다만, M&A 도착 실적은 증가를 기록(19.1억불, +31.9%)하며 국내 자금 유입 증가에 기여

- (국가별) 미국·EU·일본 투자 신고는 증가, 중국 투자 신고는 대폭 감소

* 미국 8.3억불(+15.0%), EU 14.9억불(+163.6%), 일본 12.3억불(+8.6%), 중국 3.3억불($\triangle 75.0\%$)

- (업종별) 제조업 투자 신고가 23.3억불($\triangle 24.5\%$)로 감소, 서비스 투자 신고는 35.6억불($\triangle 7.4\%$)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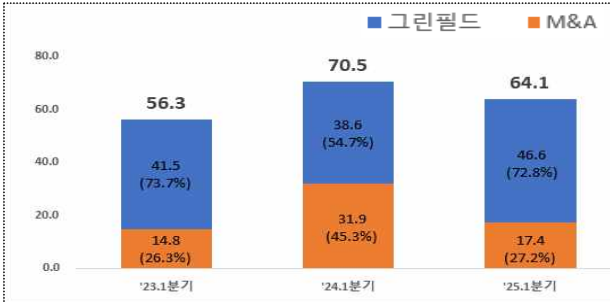
- 다만, 대형 투자(A社 M&A 7.6억불) 자금이 도착하면서 서비스의 도착금액은 68.7% 증가한 27.8억불을 기록

II. 세부 동향(유형별·국가별·업종별·자금별·지역별) ※ 신고기준

1. 유형별(신고기준)

□ (금액) 그린필드형(46.6억불, +20.7%, 비중 72.8%) 증가, M&A형(17.4억불, △45.4%, 비중 27.2%) 감소

< 유형별 신고금액(단위 : 억불) >



< 유형별 신고건수(단위 : 건) >



○ (그린필드형) 46.6억불(전년비 +20.7%)

- 제조업(21.2억불, +0.2%), 서비스업(20.5억불, +25.4%) 모두 증가

○ (M&A형) 17.4억불(전년비 △45.4%)

- 제조업(2.1억불, △78.7%), 서비스업(15.2억불, △31.6%) 모두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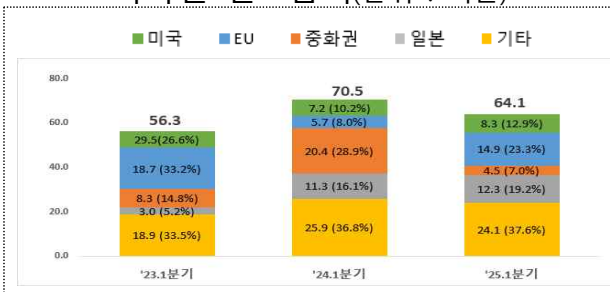
□ (건수) 그린필드(780건, △1.0%) 감소, M&A(84건, +40.0%) 증가

2. 국가별(신고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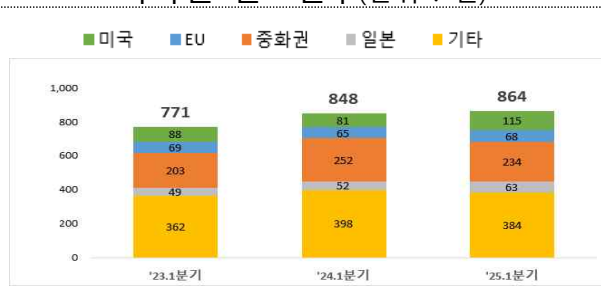
(* EU : 영국 제외 27개국, 중화권: 중국, 홍콩)

□ (금액) 미국(8.3억불, +15.0%, 비중 12.9%)·EU(14.9억불, +163.6%, 비중 23.3%)·일본(12.3억불, +8.6%, 비중 19.2%) 증가, 중화권(4.5억불, △78.2%, 비중 7.0%)·기타국가(24.1억불, △7.1%, 비중 37.6%) 감소

< 국가별 신고금액(단위 : 억불) >



< 국가별 신고건수(단위 : 건) >



○ (미국) 8.3억불(전년比 +15.0%, 비중 12.9%)

- (업종별) 제조업(1.7억불, +4.1%), 서비스업(6.3억불, +12.3%) 모두 증가
- (유형별) 그린필드(7.4억불, +28.4%) 증가, M&A(0.9억불, △38.7%) 감소

○ (EU) 14.9억불(전년比 +163.6%, 비중 23.3%)

- (업종별) 제조업(4.8억불, +251.1%), 서비스업(9.6억불, +132.4%) 모두 증가
- (유형별) 그린필드(11.0억불, +331.4%), M&A(3.9억불, +26.7%) 모두 증가

○ (중화권) 4.5억불(전년比 △78.2%, 비중 7.1%)

- (업종별) 제조업(2.5억불, △84.1%), 서비스업(0.8억불, △82.7%) 모두 감소
- (유형별) 그린필드(4.0억불, △73.9%), M&A(0.4억불, △91.2%) 모두 감소

○ (중국) 3.3억불(전년比 △75.0%, 비중 5.2%)

- (업종별) 제조업(2.0억불, △79.4%), 서비스업(0.2억불, △94.6%) 모두 감소
- (유형별) 그린필드(3.3억불, △74.4%), M&A(0.0억불, △97.6) 모두 감소

○ (일본) 12.3억불(전년比 +8.6%, 비중 19.2%)

- (업종별) 제조업(10.6억불, +1.1%), 서비스업(1.7억불, +106.9%) 모두 증가
- (유형별) 그린필드(12.0억불, +81.5%) 증가, M&A(0.4억불, △92.5%) 감소

○ (기타국가) 24.1억불(전년比 △7.1%, 비중 37.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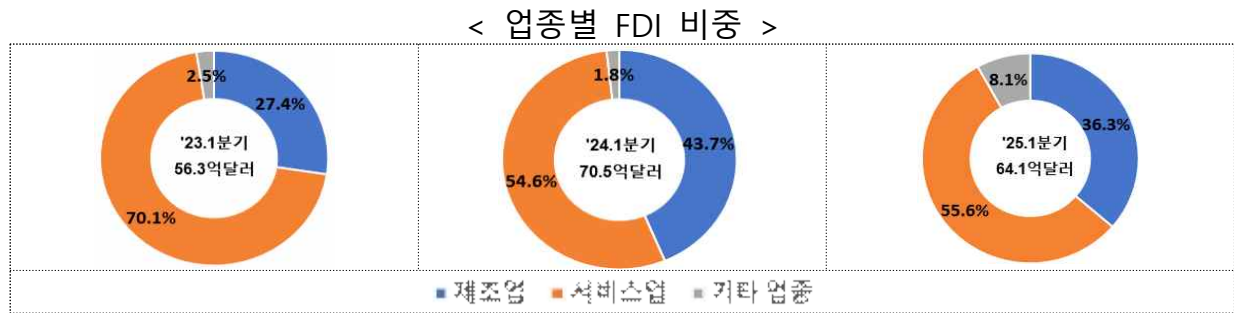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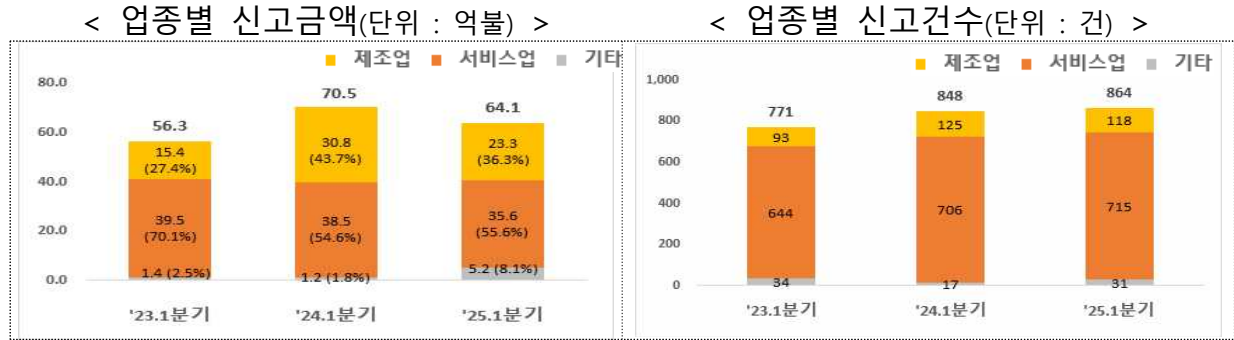
- (업종별) 제조업(3.6억불, +178.3%) 증가, 서비스업(17.3억불, △26.6%) 감소
- (유형별) 그린필드(12.3억불, +47.1%) 증가, M&A(11.8억불, △32.8%) 감소

□ (건수) 미국(115건, +42.0%), EU(68건, +4.6%), 일본(63건, +21.2%) 증가,
중화권(234건, △7.1%), 기타국가(384건, △3.5%) 감소

3. 업종별(신고기준)

□ (금액) 제조업(23.3억불, △24.5%, 비중 36.3%)·서비스업(35.6억불, △7.4%, 비중 55.6%) 감소, 기타업종(5.2억불, +316.5%, 비중 8.1%) 증가

* 기타업종 : 1차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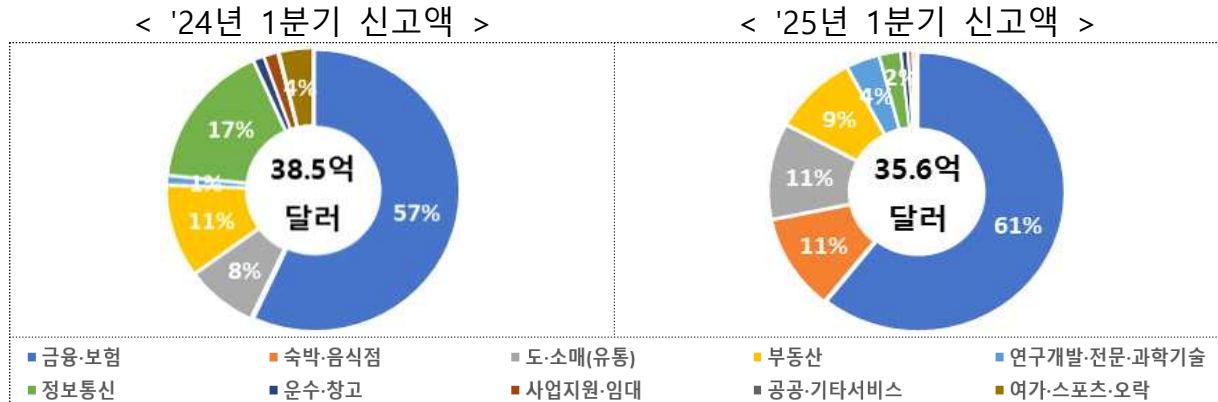


○ (제조업) 23.3억불(전년比 △24.5%, 비중 36.3%)



- (증가업종) 화공(6.30억불, +85.4%), 금속·금속가공(3.56억불, +17,708.1%), 운송용 기계(3.14억불, +195.6%) 등
- (감소업종) 전기·전자(5.29억불, △63.6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1.74억불, △67.7%), 의약(1.05억불, △77.7%) 등

○ (서비스업) 35.6억불(전년比 △7.4%, 비중 55.6%)



- (증가업종) 숙박·음식점(3.95억불, +7,678.7%), 도·소매(유통)(3.95억불, +29.0%), 연구개발·전문·과학기술(1.31억불, +232.0%) 등
- (감소업종) 금융·보험(21.63억불, △1.2%), 부동산(3.33억불, △18.6%), 정보통신(0.85억불, △86.7%) 등

□ (건수) 제조업(118건 △5.6%) 감소, 서비스업(715건 +1.3%)·기타업종 (31건 +824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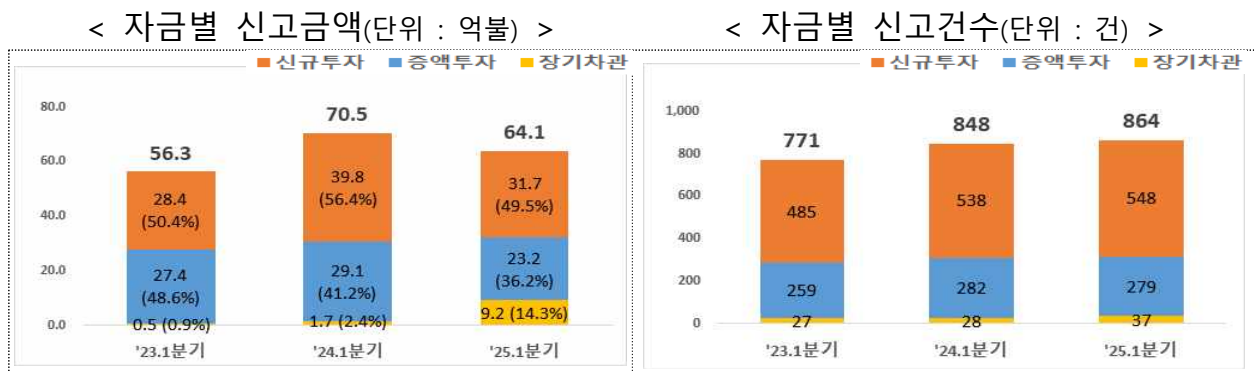
4. 자금별(신고기준)

□ (금액) 신규투자(31.7억불, △20.4%, 비중 49.5%), 증액투자(23.2억불, △20.2%, 비중 36.2%) 감소, 장기차관(9.2억불, +450.6%, 비중 14.3%) 증가

* 신규투자 :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

증액투자 :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,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

장기차관 :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



○ (신규투자) 31.7억불(전년比 △20.4%)

- 제조업(14.7억불, +3.0%) 증가, 서비스업(15.3억불, △39.8%) 감소

○ (증액투자) 23.2억불(전년比 △20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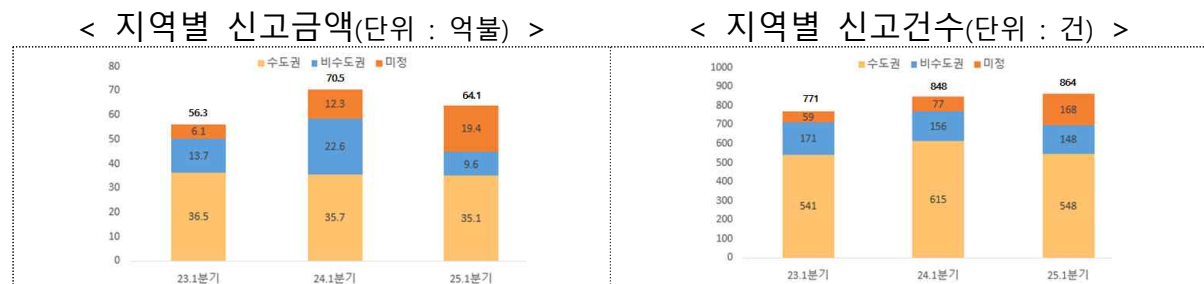
- 제조업(6.9억불, △56.5%) 감소, 서비스업(15.3억불, +25.8%) 증가

□ (건수) 신규투자(548건, +1.9%) 증가, 증액투자(279건, △1.1%) 감소

5. 지역별(신고기준)

*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비수도권 : 이외 14개 시·도,
미정(19.4억불) :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

□ (금액) 수도권(35.1억불, △1.8%, 비중 54.7%), 비수도권(9.6억불, △57.5%, 비중 15.0%) 감소, 투자지역 미정(19.4억불, +58.1%, 비중 30.3%) 증가



○ (수도권) 35.1억불(전년比 △1.8%)

- 제조업(5.0억불, △28.2%) 감소, 서비스업(29.6억불, +3.0%) 증가

* 서울(26.8억불, △2.2%), 인천(3.4억불 +934.1%), 경기(4.8억불, △39.6%)

○ (非수도권) 9.6억불(전년比 △57.5%)

- 제조업(4.9억불, △67.5%), 서비스업(1.2억불, △81.5%) 모두 감소

* 증가 사·도 : 경남(2.41억불, +304.7%), 전남(1.41억불, +14.6%), 충남(1.32억불, +111.1%), 강원(0.58억불, +593.4%), 세종(0.01억불, -)

* 감소 사·도 : 대전(1.44억불, △70.9%), 경북(1.03억불, △50.2%), 부산(0.68억불, △67.0%), 충북(0.37억불, △88.2%), 울산(0.28억불, △7.0%), 제주(0.03억불, △98.6%), 광주(0.01억불, △69.9%), 대구(0.01억불, △99.2%), 전북(0.00억불, △99.9%)

□ (건수) 수도권(548건, △11.0%), 비수도권(148건, △5.1%) 모두 감소

-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(사)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.
 - 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- 본 자료는 2025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,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5년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